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483장) 주 예수여 은혜를(486장)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40	다 같 이
기 도	Prayer	남영아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인 도 자
설 교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양과봉헌	Hymn 307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박종갑 장로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예정)**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선교사역	
양육사역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바른 믿음을 통해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2. 식사교제도 예배의 연속입니다. 기쁨으로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식사준비를 위해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최정아 성도님(304-3776)이 박종갑 장로님 인도로 지난주 출석하셨습니다.
4. 박종갑 장로님 가정에서 손주(갈렙)를 보셨습니다. 새 생명의 출생을 축하드립니다.
5. 우리교회에 맞는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0.00	
감사헌금:	$70.00	
주일헌금:	$2.00	
추수감사:	$250.00	**합 계: $322.00**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믿음과 헌신으로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복주사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2006년 11월 26일 제17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감사는 깨달음의 문제이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과 형편이 주어지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의 환경과 처지가 남달리 특별하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결같이 절망스러운 형편을 가지고 있고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거나 이제 막 어려운 고비를 넘긴 사람들입니다.

열 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 아홉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에게 명하시길 제사장에게 저들의 몸을 보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문둥병자들 중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면 먼저 제자장에게 가서 저들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장이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은 고치시지도 않고 대뜸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통해 저들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명령에 저들이 순종하며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열 명의 행동이 똑같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수준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병이 나은 뒤로 아홉 사람과 한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이방 사람이었던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만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이 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어려운 질병에서 놓임을 받았다고 합시다. 만약 누군가 그런 일을 해주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에게 달려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일생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본문은 고침 받은 열 명 중에 감사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감사는 치유나 이적 또는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침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시49:20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문둥병이 왜 끔찍하고 무서운 병입니까? 문둥병은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이 마비된 병입니다. 손이 잘라지고, 발이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픔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잘라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픔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문둥병자의 고통은 고통을 감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 일했던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리.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는 이런 의미에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것은 적어도 깨달음이 커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더 많은 은혜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임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비로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감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열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아홉과 돌아온 한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끗함을 받기는 열 사람이 다 받았으나 아홉 사람이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육체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영혼의 깨끗함도 함께 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때로 기적적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보면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병 고침과 구원은 별개입니다.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홉은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그 아홉은 어디 갔을까요?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의 병 나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은연중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바로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둥병 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병보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하고, 더 무서운 병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병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병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 지는 것이라 말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감사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병 낫기를 소원하는 믿음은 다른 열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보다 본질적인 구원의 축복은 감사한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눅17: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가장 귀한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저는 지나가 버린 과거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처지는 어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지나가 버려 어찌 할 수 없는 과거조차 바꾸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처 많은 과거를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고통스런 환경을 변하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구원이며 이 구원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기적적인 치유의 체험보다 감사는 더 위대한 체험이요 능력입니다.